

2021년 3월호(제 195호)

# 소중한사람들

진달래 꽃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네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 했어  
이렇게 멀리서  
너를 지켜보는 눈길로만  
숨으려 했어.

너로 인하여  
나는  
빛으로 눈부시고  
구름이 흐르고  
산새가 노래를 했지

그늘이 지고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지

너를 가슴에 안고  
안달 하다가  
절벽이 되고  
산이 되고  
끝내  
불계 불계 타고른 내 사랑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여기,  
불은 꽃 되어  
네 앞에 선다.

시. 유정옥

발행인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10-7195-3045 · www.pphealing.com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 당신도 이렇게 변할 걸요

지난 2월 간암 4기 판정을 받고 입소한 봉\*\*집사님은 무척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암환자라는 판정을 받고 나타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살아갈 소망 없이 처절하게 절망하는 그 환우에게 나는 힘을 내라며 고무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봉\*\*집사님만 4기가 아니며 여기에는 6-7년 이상 암과 싸워 오고 있는 분들도 있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4기 아니라 말기환자라는 말로 소개해야 할 분들도 많이 있지요."

봉\*\*집사님은 입소한지 며칠이 지난 이후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암환자 같지 않아요"

암환자이지만 암을 생각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무척 흥미롭고 신기해 보였을 것입니다.

나는 너스레 떨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도 며칠 지나면 저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암이라는 선고는 갑작스럽게 받게 되는 일입니다.

암은 초기에 통증 없이 와서 결국 몸의 이곳저곳에 퍼진 뒤에야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몸을 검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만한 소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암 4기 진단을 받게 되면 앞이 캄캄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암에 걸리고 나면 어떻게 치료해 가야 할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검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열정적인 분들은 돈을 내고 세미나 등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저런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면 희망과 소망이 생겼으면 좋는데 오히려 낙망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스스로도 잘해 보고자 하는 마음 가득하여 항암치료를 시작해 보지만 문제는 항암치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혼자 집에 남겨져 항암 약기운과 싸워 가려면 그 심리적인 충격은 웬만한 사람은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온통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절망과 답답함을 혼자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환우의 그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 암 환우 중 4명중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낙심이 되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면 병을 고쳐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항암치료는 주사를 맞는 치료 시간과 다음 치료 시간 사이 보통 2주간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 2주간의 시간 동안 약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또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일도 일어나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환경에서 몸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물리적인 우리의 몸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위장에 염증이 생기고 심해지면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방치하거나 더 악화되면 암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하는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몸을 적으로 인식하는 이런 오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병의 요인이 반드시 마음이라 할 수 없지만 마음도 병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암 치유에 있어서 마음을 잘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암 치료에 70%에 해당하는 중요도를 두기도 합니다.

마음 치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 치유는 어느 한부분이 회복되거나 혹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전인적으로 이해합니다. 마음은 영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또한 육체의 영향도 받습니다. 또한 역으로 마음은 영과 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마음 회복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적인 이해와 세상적 이해에는 큰 차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세상적 이해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어떤 수양이나 덜어내는 방식 등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후 1: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라는 단어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가 속히 오는 구절입니다. 은혜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임과 같이 평강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은혜를 받는 방안을 말씀과 기도, 성찬을 통해서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모든 회복을 위한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자리이며, 은혜를 주시는 자리이고 나아가 우리의 육체가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 환우들이 암환자들이 모인 병원처럼 보이지 않고

거룩한 열정을 품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곳에 예배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환우들이 치유 받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에 소중한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로 기억되는 것은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선 곳이 어디이든 회복되길 바란다면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2번 드리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있는 봉\*\* 집사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른 환우들처럼 암환우의 눈물과 절망을 벗어 버리고 예배 속에서 치료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글/ 이성일 목사



▲ 건강한 브런치타임



▲ 겨울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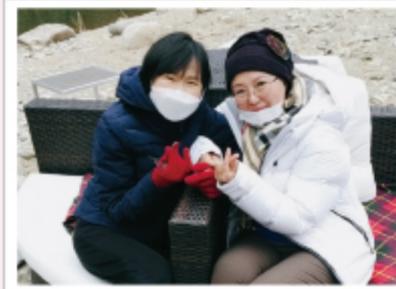
▲ 그녀와 네미녀



▲ 다정한 오누이 갈조



▲ 복음제시 훈련



▲ 사랑합니다



▲ 서로 사랑해요



▲ 여유로운 힐링시간



▲ 오늘도 건강하V



▲ 전도폭발 공개보고



▲ 전도폭발훈련



▲ 주님만신 걸작품



▲ 행복한 복음제시



▲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 흰눈보다 환한 미소

##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내가 어렸을 적 보았던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  
 추운 겨울, 하수구에 떨어진 밥알이 얼어붙었는데 그 밥알을 핥아 먹고 있는 쥐였다.  
 어머니는 하수구에서 발발 떨어뜨리고 있는 쥐가 쌀이 가득한 창고로 가지 못하는 것은 하수구를 떠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까봐 떠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너도 어느 날, 너의 모습이 하수구에 살고 있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쌀이 가득한 창고로 옮기라고 하셨다.  
 나는 1985년 2월3일 밥알을 핥아 먹던 하수구를 떠났다.  
 그 하수구를 떠난 이후 나에게 주어진 일 중의 하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이다.

**1. 다운증후군**  
 서초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모님이 나를 찾아왔다.  
 미국에 있는 딸이 오랫동안 임신을 못하다가 임신을 했는데 기형아 검사를 해보니 다운증후군이라고 판정이 났다는 것이다. 딸은 기형아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면서 낙태를 하겠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나를 찾아 왔다고 했다.  
 나는 그 태아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태아는 건강하다는 응답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몫이다.  
 아무도 나의 기도의 응답의 인지를 모른다. 이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언제나 믿음과 불신의 두 가지가 갈등한다.  
 “네가 다운 증후군이 아니고 건강한 태아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 응답을 믿고 아기를 낳았을 때, 다운 증후군이면 너는 어떻게 그 기도의 책임을 질래? 다운증후군이 아니면 저 잘나서 낳은 줄 알고 만약 다운 증후군이면 너를 죽이려고 덤벼들거야. 이 기도에 내가 얻는 유익 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고 감당 못할 책임만 따를거야. 그러니까 다운증후군이 아니다 명확히 대답하지 말고 그저 언저리만 돌아라.”  
 그럴 때 성령은 말씀하신다. “너의 말 한마디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죽게 된다.”  
 나는 명확히 대답하였다. 태아는 “다운증후군이 아니고 건강합니다.”  
 기도 후 몇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의 부담을 갖고 계속 기도하게 되었다. 몇 달 후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오늘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다운증후군이 아니고 건강해요.” 아주 짧막한 전화 한 통으로 그 날부터 시작된 나의 긴 기도의 댓가는 끝났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은 기쁨.

**2. 신경관 결손증**  
 소중한사람들에서 십여 년을 충성되게 봉사해 오신 분이 가족과 함께 다급히 나를 찾아왔다. 함께 온 아들 내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 이유는 임신을 하지 못했던 며느리가 어렵게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했는데 오늘 기형아 검사에서 신경관 결손증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아기는 낙태를 하고 다음 아기를 기다리자는 의견과 장애가 있더라도 아기를 낳아 기르자는 의견으로 갈등하고 있었다.  
 나는 그 날 또 다시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기도의 응답은 태아는 건강하고 지혜로우며 이 가정에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었다. 기도 후 나는 전과 다름 없이 기도의 책임을 진다. 그 봉사자에게 단 한번도 태아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저 기도만 했다. 왜냐하면 신경관 결손증은 다운증후군과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병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1일 그 봉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손녀가 태어났어요. 3kg의 건강하고 예쁜 아기에요.” 짧막한 전화 한 통이면 된다.  
 나의 긴 기도의 댓가는 언제나 기쁨이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만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일에 나는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건다.  
 생명을 얻는 일이니 당연히 내 생명까지 걸 수 있어야 한다.

글/유정옥

# 2020년 2월 청평 소중han사람들교회 헌금

## ●천사헌금●

최영애(1,000,000) 장승아(1,000,000) 황복순(100,000)

## ●십일조●

권분희(30,000) 권은미(300,000) 민은나(130,000) 박광수(110,000) 박근례(35,000) 변영미(270,000) 신현숙(100,000)  
 양옥경(300,000) 이상일,박선인(300,000) 이은규(100,000) 이인숙(300,000) 이태희(20,000) 이항희(20,000) 정혜실(100,000)  
 정훈기(270,000) 최영재(100,000) 최영희(80,000) 황순환(100,000)

## ●감사헌금●

강성림(100,000) 고혜옥(100,000) 구민정(20,000) 구재은(78,735) 권분희(50,000) 권은미(250,000) 김선아(50,000)  
 김순정(80,000) 김순정(500,000) 김연희,정유희(500,000) 김경숙(20,000) 김지순(300,000) 민은나(100,000) 박광수(20,000)  
 박광수(100,000) 박교석(500,000) 박선인(156,653) 박애경(30,000) 박준호(294,000) 변영미(50,000) 상낙희(230,000) 오윤재(80,000)  
 송기승(30,000) 신정아(30,000) 신현규(120,000) 신현숙(10,000) 안영희(400,000) 양옥경(60,000) 오윤재(80,000)  
 유정옥(250,000) 윤순남(100,000) 윤채원(200,000) 이금자(100,000) 이달희(110,000) 이마라(200,000) 이미진(50,000)  
 이상일(200,000) 이상복(10,000) 이영관(120,000) 이윤림(150,000) 이은규(230,000) 이인숙(441,000) 이진숙(10,000)  
 이희숙(70,000) 전옥교(7,000) 정동익(30,000) 정훈기,박효정(80,000) 조정덕(100,000) 최금련(30,000) 최봉관(800,000)  
 최영애(100,000) 최영희(180,000) 최은정(10,000) 최정림(40,000) 한창식(200,000) 황옥남(30,000)  
 황혜영(20,000) 강가상(10,000) 공은영(30,000) 김갑근(30,000) 김광숙(30,000) 김영관(100,000) 김현숙(1,000,000)  
 김혜림,김윤재(100,000) 무명(100,000) 박관희(5,000) 박채원(500,000) 상정음(20,000) 소한태(10,000) 손명옥(50,000)  
 신승우(500,000) 양옥경(330,000) 유선정(100,000) 윤아림(5,000) 이금옥(100,000) 이든구(1,000,000) 이영송(50,000)  
 이원옥(1,000,000) 이은규(30,000) 이은나(50,000) 장승아(100,000) 최영희(10,000) 최혜령(200,000) 한은숙(800,000)  
 현성원(30,000) 계영산업(100,000) 국회기도회(50,000) 목회자협센터(100,000) 서울서교회(100,000) 오름호스피스(50,000)

## ●CMS헌금●

강은주(10,000) 강은숙(20,000) 권태준(10,000) 김규옥(30,000) 김명재(20,000) 김분기(50,000) 김명신(30,000)  
 박경미(50,000) 박관준(20,000) 백소연(20,000) 윤화숙(30,000) 이경희(10,000) 이성림(100,000) 이혜경(50,000)  
 장승아(10,000) 정애은(5,000) 정은경(10,000) 조남남(20,000) 조영실(40,000)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십일조	2,645,000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1,012,197
감사헌금	15,251,388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466,575
천사헌금	2,100,000	식자재구입비	7,197,341
CMS헌금	565,000	전기요금	5,860,900
		가스요금 및 열량비	940,250
		화재보험료	1,200,000
		KT통신비	499,450
		CMS사용료	66,000
		비품구입비(소모품)	504,500
		집기구입	1,004,500
		안전점검비	461,500
		우편발송비, 광고비	43,140
		급여인건비	14,174,010
금월 수입 합계	20,561,388	지출 총액	33,430,363
전월 이월금	503,410		
차입금	13,000,000		
총 수입 합계	34,064,798	금월 잔액	634,435

소중han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심터

소중han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를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2210-9106)

소중han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업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2월 가입자 명단 (2명)

264. 최영애 265. 장승아

##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원옥	2. 최미경	3. 최영자	4. 유재선	5. 이명구	6. 김수영	7. 설종근	8. 이희수	9. 조주영	10. 단혜동
11. 박철홍	12. 정동영	13. 조현신	14. 정경석	15. 이은희	16. 박종배	17. 이종성	18. 김갑희	19. 차은옥	20. 성기빈
21. 박은희	22. 박영기	23. 박재범	24. 박순화	25. 임광래	26. 한정택	27. 이성자	28. 강은희	29. 권희규	30. 송광수
31. 김덕상	32. 윤철현	33. 진동화	34. 이해란	35. 진미리	36. 김영신	37. 임승택	38. 장용훈	39. 이춘자	40. 오병화
41. 최수지	42. 허상익	43. 송영옥	44. 최범락	45. 정수영	46. 정지현	47. 문철자	48. 정한종	49. 정해강	50. 최숙자
51. 윤 완	52. 최범락	53. 최유은	54. 최여은	55. 박정애	56. 정동준	57. 손영옥	58. 권경희	59. 사재신	60. 이희기
61. 이원영	62. 심 형	63. 이상수	64. 박혜숙	65. 이상준	66. 최수경	67. 나선미	68. 김영관	69. 천우규	70. 김대현
71. 김희정	72. 구남진	73. 이종권	74. 정동영	75. 김양숙	76. 이주열	77. 변현영	78. 배경하	79. 최수연	80. 박지현
81. 이정은	82. 이정은	83. 신성란	84. 정은기	85. 정화창	86. 정여은	87. 박효정	88. 허영종	89. 김미원	90. 신형진
91. 변영은	92. 유성진	93. 정주성	94. 김갑희	95. 박철홍	96. 홍명주	97. 김현숙	98. 무 명	99. 유성진	100. 성낙희
101. 권홍봉	102. 황복순	103. 이화영	104. 황정아	105. 황현동	106. 민성태	107. 김현숙	108. 고금진	109. 김영진	110. 계영산업
111. 그레이스 한	112. 아이린 김	113. 이항은	114. 이동주	115. 안서영	116. 도문식	117. 김명성	118. 한유희	119. 유성진	120. 권봉도
121. 김현숙	122. 정상희	123. 박유민	124. 이한나	125. 이용옥	126. 이민자	127. 김현숙	128. 이미영	129. 조영석	130. 박지현
131. 김연희	132. 박순화	133. 안정순	134. 김태연	135. 박혜숙	136. 양수진	137. 심재복	138. 김현숙	139. 오봉자	140. 이태종
141. 김다비다	142. 진지아	143. 조혜숙	144. 이병훈	145. 박혜정	146. 민한나	147. 이금형	148. 윤희진	149. 윤은주	150. 최명희
151. 청명힐링	152. 김화련	153. 안정희	154. 김영숙	155. 문예은	156. 임순미	157. 고영복	158. 김미희	159. 김사라	160. 박준영
161. 박효숙	162. 이석우	163. 이순주	164. 이열리	165. 이예슬	166. 이재용	167. 이종인	168. 정동영	169. 김말란	170. 유선정
171. 이강순	172. 황옥남	173. 김희성	174. 이원경	175. 박경근	176. 김진임	177. 신진경	178. 김 영	179. 이든구	180. 문종만
181. 강인숙	182. 오정민	183. 문지연	184. 문지수	185. 이다정	186. 이든구	187. 송희종	188. 이하은	189. 정윤호	190. 김순애
191. 인종복	192. 이명화	193. 유광현	194. 이든구	195. 이윤림	196. 안성훈	197. 박은순	198. 이영숙	199. 윤대우	200. 최금련
201. 김호년	202. 김혜원	203. 장승아	204. 황복순	205. 박영대	206. 양옥경	207. 오재원	208. H	209. 백성은	210. 홍지윤
211. 이희숙	212. 권은미	213. 무명	214. 황순찬	215. 박이행	216. 유민성	217. 우애미(부사)	218. 이은주	219. 백성은	220. 도영화
221. 박순화	222. 이시은	223. 정호진	224. 김순정	225. 김옥연	226. 윤재원	227. 원적의선원재로	228. 김예송	229. 김수현	230. 김수현
231. 장관숙	232. 김숙희	233. 남원학	234. 남지영	235. 남혜원	236. 김정자	237. 박순순	238. 노은순	239. 이상혜	240. 정혜실
241. 최혜령	242. 임계숙	243. 이승재	244. 연유홍	245. 김선경	246. 김선영	247. 손태정	248. 이은주	249. 이인숙	250. 최영희
251. 한종석	252. 한화숙	253. 김예원	254. 박정희	255. 한경숙	256. 이기열	257. 정은영	258. 이우주	259. 이우경	260. 최영희
261. 김미옥	262. 김동수	263. 조지영	264. 이선	265. 최영애	266. 장승아				

소중han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65-9106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han사람들교회

## 소중han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소나무 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1년 02월 씨앗헌금 후원 : 김행심 10,000, 무명 100,000

2021년 02월, 7명의 환우에게 2,746,040원을 병원비로 지원하여 환우들이 치료비 부담없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han사람들교회

# 목요 Precious Worship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는 환우들이 면역성이 약하여 코로나 차단을 위해 외부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에는 계속 되었지만 외부의 중보기도자들이 함께 하지 못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중보기도해야 하는 환우들 명단을 올려 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권\*송 님(난소암) - 얼마 전부터 표적항암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몸에 맞는 항암이 되어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2. 최\*관 님(췌장암3기) - 얼마전 검사에서 암크기가 2cm이상 줄었습니다. 암세포가 줄어들어 수술단계까지 갈수 있도록, 3/8~10일에 8차 항암치료가 후유증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통과 불면증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주세요.
3. 최\*임 님(유방암) - 6월에 CT 및 뼈스캔 예정입니다. 재발과 전이 없이 완치되고 잘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주세요.
4. 봉\*석 님(간암,뼈암) - 간암과 뼈암이 완전히 완치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이\*라 님(복막전이암) - 신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특히 손, 발 피부 벗겨짐 부작용이 없도록, 항문 통증과 장루사용에 문제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6. 최\*애 님(유방암 4기) - 시스항암과 젠자항암을 잘 견딜수 있도록, 식욕이 생겨 면역, 호중구 수치가 회복되도록, 항암부작용이 없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7. 성\*희 님(소장암4기) - 3월11일 마취통증의학과 진료때 통증의 원인을 바르게 찾아내고 부작용 없는 치료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입맛이 더욱 살아나 먹는 음식마다 소화 잘 되도록, 신약이 보험 적용되어 수월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8. 윤\*원 님(유방전이 재발암) - 3월18일 CT촬영에서 깨끗한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9. 김\*향 님(유방암) - 복막전이로 인한 복부 통증과 뼈 통증이 사라지도록, 폐렴이 치유되어 유착된 폐가 건강해 지도록, 수면제 없이 단잠을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 이\*광 님(방광암) - 항암부작용으로 간수치가 높습니다. 간수치가 떨어지도록, 3월19일에 전립선을 깎는 수술 예정입니다. 결과가 좋아 배뇨에 문제 없고,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2)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우리 환우들이 독수리 날개처럼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삶의 한걸음을 내딛습니다

##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울로226)
- 말 씀 : 유정옥 사모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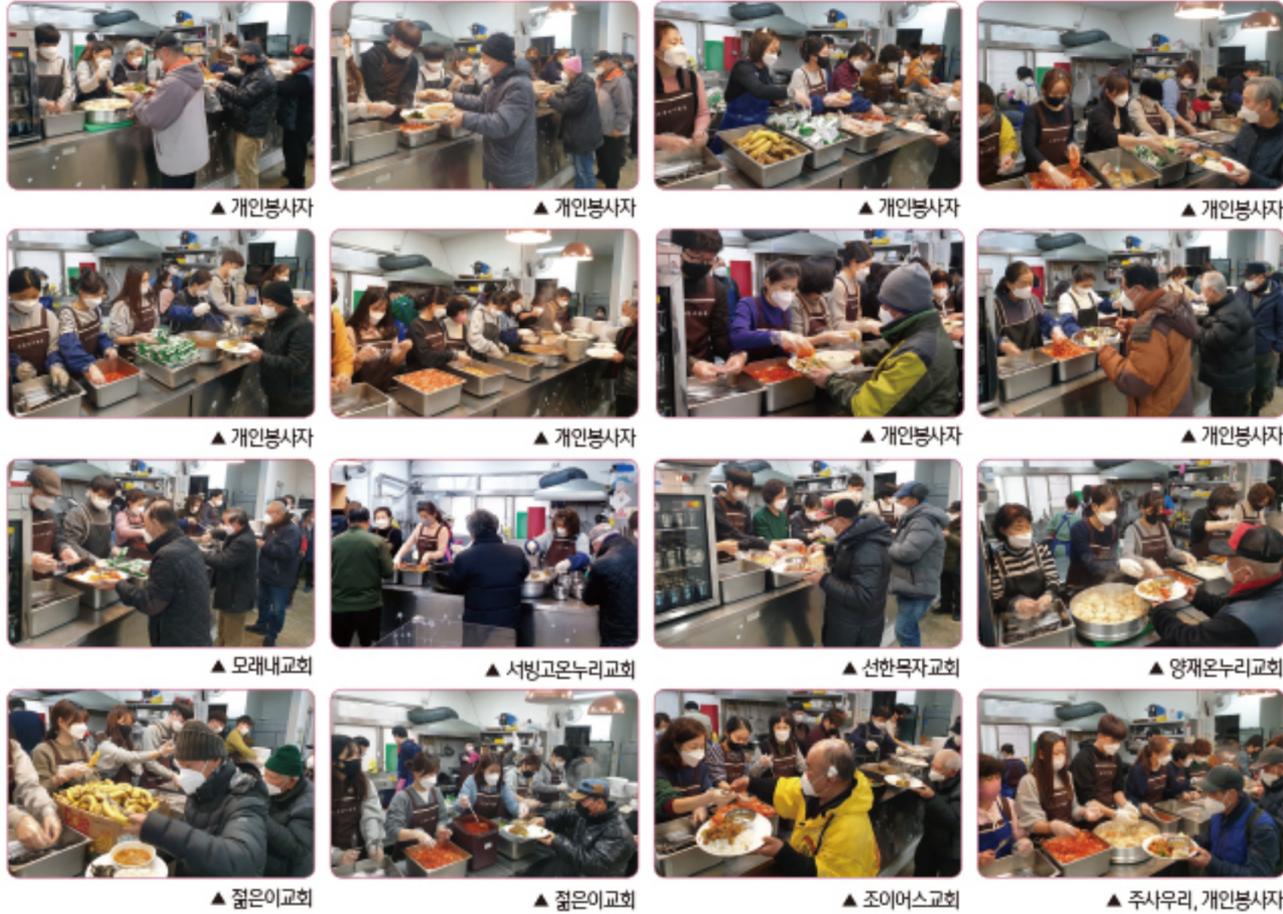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facebook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YouTub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 목요기도회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모래내교회 ▲ 서빙고온누리교회 ▲ 선한목자교회 ▲ 양재온누리교회  
 ▲ 젊은이교회 ▲ 젊은이교회 ▲ 조이어스교회 ▲ 주사우리, 개인봉사자

### 노숙인들과 함께 한 설날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지 17년을 맞이 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방역의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300명 이상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월에는

수지선한목자교회에서 3일, 5일, 8일, 11일, 17일, 19일, 25일을 봉사해 주셨습니다.

2일 모래내 교회 9일 조이어스 교회 1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22일 양재 온누리교회 27일 주사우리 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권경희, 국예원, 김성주, 김진숙, 김태희, 김희숙, 박은경, 박은순, 박정숙, 박현숙, 서유나, 서정규, 석동신, 손수정, 신은혜, 신승규, 여예인, 우현균, 이문경, 이삼숙, 이선화, 이평은, 이현숙, 임경남, 임경숙, 전민희, 진예린, 정은혜, 최금련, 천정희, 한현희, 홍경진

강덕희, 고금순, 김용수, 김연희, 김도영, 김철성, 노정규, 박경근, 방유미, 변영미, 이정희, 이한숙, 임맹자, 장종숙, 허청만, 한송화...개인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매일 예배와 합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난한자들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요엘, 조진영, 정기종, 이은철, 이성일 목사님과 김재정, 이범주 교수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선한목자교회미용봉사 ▲ 선한목자교회미용봉사 ▲ 선한목자교회미용봉사  
 ▲ 선한목자병원 의료 선교 ▲ 영락교회 사회봉사부 ▲ 우산나눔\_수지선한목자교회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힘들음은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지친 삶의 어려움속에서도 노숙인들을 위해 한가지, 두가지 정성스럽게 만들고 다듬고 모아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물품을 매일같이 나누어 주는 나눔속에 소중한사람들 모든이들이 하나될 수 있어서 행복한 2월이었습니다.

이렇듯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노숙인들에게 영양있고 맛있는 밥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매일 예배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명임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매일 예배와 합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난한자들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요엘, 조진영, 정기종, 이은철, 이성일 목사님과 김재정, 이범주 교수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2월20일 30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27일 47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수지 선한 목자 교회 이발 미용 봉사단에게 감사드립니다.

# 소중한사람들 남성 센터



▲ 명절식사



▲ 생활인 입소상담



▲ 생활인 커뮤니티



▲ 설명절TV시청



▲ 설명절TV시청



▲ 스웨터나눔

센터 생활인들은 잃어버린 혈육의 가족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소중한사람들 가족인 것을 기뻐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활인들 중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센터는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소 생활인들은 센터를 출입할 때 행선지를 밝히고 직원의 승인을 받아서 외출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되도록 외출을 삼가 해야 하며 직장이 아닌 곳 중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센터 생활인들은 잃어버린 혈육의 가족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소중한사람들 가족인 것을 기뻐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고유의 명절이었던 설날에는 최소한의 외출로 간단한 친지 방문 등을 마치고 센터에서 모두 모여 TV시청 등을 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차분히 명절을 보냈습니다.

센터 생활인들은 잃어버린 혈육의 가족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소중한사람들 가족인 것을 기뻐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성센터는 현재 34명이 입소되어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자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상담 · 치유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3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3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주신다.

매월 셋째 토요일 12시부터 진료가 있다.



## 중보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844회가 되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의 종합적 기도 제목을 기도한 후 참석자 개인의 중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바란다.

### 중보기도제목

#### 1. 소중한 사람들 사역

- 1) 남성 센터 생활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샤워,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 4) 타국인을 섬기는 소중한사람들 이주민 센터 사역을 위해

#### 2. 소중한 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마,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 4. 아이티 사역

- 1) 교육 -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육 2) 고아:1:1후원 3) 싱글맘 사역 4) 형무소사역 5) 무료진료 6) 손전등 보급

#### 5. 치유

-신형진, 최유은, 김정신, 김진수, 최영자, 신현숙, 이미라, 권분희, 이희숙, 최영애, 이용림, 김순정, 성낙희, 양옥경, 구재은, 박교석, 김지순, 윤채원, 최정임, 이달호, 최영희, 이인순, 권은미, 이미진, 강성림, 최봉관, 이영관, 권유승, 나명숙, 김미향, 봉현석

#### 6. 박효정, 이제호, 이복희, 이기열, 이상철, 이희열, 김성태, 이혜숙, 박영례, 김연희, 안정희, 유춘애, 김현충, 최은희, 이명숙, 김영민,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인종복, 김미희, 박경미, 이옥경, 김우현 재발되지 않도록

7. 신형진님이 스피리자 주사맞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8. 앤드류 구명을 위해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들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2210-9106<문자로>

##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 아이티

뉴저지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함으로 귀퉁 마을에 현대식으로 초등학교와 교회를 완벽하게 완공했습니다.

재배마을에 이어 귀퉁마을에 지어진 초등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아이티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을 바랍니다.

다른 마을에도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아이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악탈과 납치가 중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미얀마

소중한사람들은 2008년부터 김동호, 조현정 선교사님과 동역하여 현재 미얀마고아 후원과 초등학교 운영, 중 고등학교 건립 및 운영 후원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종칼레이 기독교 초등학교는 2015년 4월 미얀마 교육부로 공식 인가를 받고 사립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고, 미얀마에서 최초로 인가받은 기독교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교육혜택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을 통하여 양육 받고 교육받은 고아들이 이젠 새로 들어오는 고아들을 돌보는 교사들로 일하고 있다니 불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리고 십년이 넘는 시간을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랑의 사역이 계속 되어서 수많은 미얀마 고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멕시코

## 소중한사람들 해외 사역



2010년 3월 멕시코 엔시나다에 인디오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천 학교 겸 고아원을 세워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인디오 원주민들은 감뽀라는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며 집단 거주를 하는데 15살때부터 아이를 낳아 한 가정에 아이가 6~10명이나 됩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들은 매춘부나 마약딜러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멕시코 엔시나다 오벤에돔의 집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중국

2009년 11월부터 중국 도문시 애심 복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아들은 탈북자들의 아이들이거나 연변에 버려진 조선족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아후원 사역은 한철범 원장님, 선교는 최민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북한



북한 선교를 담당하시는 김\*\* 선교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이 묶여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필요한 물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북한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통제가 풀리면 바로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철저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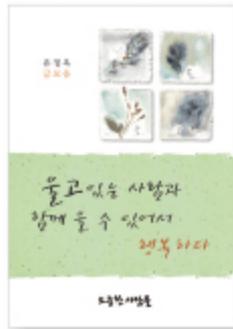
북한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퍼져 가야 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적극적인 후원을 기다립니다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의 첫 번째 이야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86쇄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했던 유정옥 사모의 신앙생활을 담은 에세이 고아가 된 어느 남매를 맡아 키운 이야기 생면부지의 암환자를 봉양한 이야기 먼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 등 삶의 굽이마다 펼쳐진 따뜻한 이야기들을 전해준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유정옥·정가 10,000원)

**소중한사람들 아름다운 세 번째 이야기**  
 <아가야, 우리잘해 보자>

<http://café.naver.com/orangecekpu>에서 육아고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명의 YES24 회원이 평가한 평균별점 9.7 /10.0  
 두 아이를 키우는 박선인 사모가 실제로 아이와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감동으로 풀어가는 영롱한 이슬 같은 예쁜 이야기 글 모음이다.



<아가야, 우리잘해 보자>  
 (박선인·정가 12,000원)

**도서출판 소중한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 사모의 두 번째 이야기**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는 서울역 노숙인들 곁에서 12년간 함께 해온 유정옥 사모가 그곳에서 마주한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이야기와 자신이 살아오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워할 때 다시 힘을 얻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유정옥·정가 12,000원)

**소중한사람들 아름다운 네 번째 이야기**  
 <아이때문에 미치지 말자>

박선인 사모의 우리아이를 위한 예쁜 글모음, 그 두번째 내 아이를 위한 사랑과 감동의 이야기... 우리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양육해 가는 세밀한 과정을 사랑의 마음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 이 책은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친, 자존감을 상실한 어른들에게도 사랑과 힘이 깃들게 되는 선한 지침서와도 같은 사랑과 지혜가 담긴 글 모음이다.



<아이때문에 미치지 말자>  
 (박선인·정가 12,000원)

**말씀 통독, 정독 및 성경 공부용 신개념 성경**  
 <형광펜 성경1, 2, 신약>

**펴낸이 <이성웅/이하나> 출판사 <하늘창고>**

[형광펜 성경 1]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묶어 8월 17일에 출간되었으며, 역대상부터 말라기까지 묶은 [형광펜 성경2]가 2016년 4월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광펜 성경 신약]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개역한글판”으로 출간됩니다.

**형광펜 성경의 표시 방법은**

각 장 별로 반복되는 구절을 찾아서 다르게 표시해 주었습니다. 2~3단어의 짧은 구절은 글자 색에 변화를, 4~8단어의 구절에는 같은 색의 밑줄을, 9단어 이상의 긴 구절에도 글자 색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짧은 구절은 경우에 따라 가독성을 고려하여 표시를 생략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구절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형광펜 성경 신약]에서는 구약이나 해당 복음서 안에서 관련 구절을 찾아 복음서가 쓰인 당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대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찾아 그 의미를 본문 옆에 기록하였으며, 무엇보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찾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관련된 그림 혹은 지도를 찾아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며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형광펜 성경을 통해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형광펜 성경으로 이야기를 듣듯이 성경공부를 시작해보세요.

유튜브에서 형광펜성경 하늘창고를 검색하시면 동영상 강의로 쉽게 성경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티타임&바이블**

**<형광펜성경 오프라인 특강>**

티타임&바이블은 바쁜 직장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한 열린 성경 모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작은 성경 카페 같은 모임이에요. 특히,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는데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었던 분들,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궁금한 점들이 생길 때 바로바로 질문하지 못해 답답하셨나요?

티타임&바이블에서 혼자 또는 함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담당 목회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티타임&바이블에 함께 모인 다른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시간에 오셔서 특강을 들으셔도 좋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다 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티타임&바이블에서는 티와 커피가 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픈한 공간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들려주세요.

**\* 형광펜성경 오프라인 특강일정 \***

- 창세기 (화 오후7:30/ 강남구청역 갯피플웨딩)
- 히브리서 (금 오후7:00/ 공덕역 르네상스타워 2205호)
- 다니엘 (주일 오전 9:30/ 공덕역 르네상스타워 2205호)

◆ 일반서점, 인터넷서점, 직접주문(02-365-9106)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소중한사람들의 책 수익금은 서울역 노숙인 무료급식, 암환우 힐링 센터 의료 선교비로 쓰여 집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읽혀 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추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봄과 함께 사랑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산수유 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렸으니 산허리에 개나리, 진달래 피어나겠지요.

이제 그만 거짓과 욕심과 분열과 불법은 사라지고

정직과 배려와 연합과 정의가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춥고 시린 겨울을 잘 견디어낸 우리 노숙인들이 대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족 노숙인들을 저희 소중han사람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17년을 한결같이 정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동역자님들 후원자님들이 있기에 기쁘게 이 길走下去 수 있습니다.

## 2월에 십일조를 보내주신

권기훈 권이안, 김도영 이한숙, 김영진 손미나, 김용수 송연숙, 문영완 문영숙, 안현진 이영현, 이성웅 이한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병향, 강인미, 고금순, 구명신, 김갑희, 김경이, 김채완, 김현숙, 나은선, 나종숙, 노아, 동광프리즘, 박문희, 박선순, 박창호, 백용하, 백은향, 변영미, 송재봉, 송희중, 신명순, 신형진, 신혜영, 양지혜, 원영옥, 유광현, 유영재, 유정옥, 이명숙, 이성혜, 이신실, 이윤정, 이주열, 이주희, 이혜숙, 임나리, 임덕환, 임맹자, 장지호, 장현숙, 조성규, 추연국, 홍복실, 홍성경, 홍정희, 황정아, 홍부네, H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 감사 헌금을 보내주신 김하정, 변영미, 예수사랑, 최진자, 주영훈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현숙 백홍석, 이성웅 이한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기관, 단체 헌금을 보내주신 (기갑)안양감리교회 (기갑)수지선한목자교회 (기성)아현성결교회 (예정)서빙고 은누리교회 (예정)조이어스교회

베이직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사)은누리 약국 사회봉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박서준, 신혜영, 조경숙, 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미안마, 멕시코, 중국, 북한의 고아들을 섬기는 일에 헌금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아이티로 직접 송금하여 아이티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 미국 뉴저지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CMS를 통해 매달 후원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han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섬김 헌금을 해 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려지는 여배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쉽터 생활인들은 취직을 하여 직장을 얻고 저축을 하며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티, 미안마, 멕시코, 중국, 북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 없는 고아들이 희망과 꿈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 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소중han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법적인 울무에 잡혀 있는 분들이 승리하여 완전히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형진님이 스프린자 주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유운이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고동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건강하게 치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청평 소중han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우님

최영자, 신현숙, 이미라, 권분희, 이희숙, 최영애, 최영애, 이용림, 김순정, 성낙희, 양옥경, 구재은, 박교석, 김지순, 윤채원, 최정임, 이달호, 최영희, 이인순, 권은미, 이미진, 강성림, 최봉관, 이영관, 권유송, 나명숙, 김미향, 봉현석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소중han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박호정, 이재호, 이복희, 이기열, 이상철, 이희열, 김성태, 이혜숙, 박영례, 김연희, 안정희, 유춘애, 김현충, 최은희, 이영숙, 김영민, 정종익, 이정화, 고혜옥, 인종복, 김미희, 박경미, 이옥경, 김우현님이 재발되지 않도록 암에서 온전히 해방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17년을 한결같이 소중han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han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소중han사람들 유정옥 드림

## 2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수량	재고
2/1	무명	쌀20kg	2포	2/2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2포	0
2/1	푸드뱅크	빵	4박스	2/2	아침간식	저리노숙인	4박스	0
2/1	푸드뱅크	만두	1박스	2/2	아침간식	저리노숙인	1박스	0
2/3	푸드뱅크	햇배	1박스	2/4	햇배 나눔	저리노숙인	1박스	0
2/5	푸드뱅크	빵	4박스	2/6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4박스	0
2/5	푸드뱅크	만두	1박스	2/6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1박스	0
2/5	노아	육수	10박스	2/6, 7, 8, 9, 10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242박스	0
2/5	노아	불고기용 돼지고기	150kg	2/6, 7, 8, 9, 10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2430kg	0
2/5	노아	소고기	60kg	2/11, 12, 13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2430kg	0
2/5	노아	돼지고기	300kg	2/14, 15, 16, 17, 18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2430kg	150
				2/19, 20, 21, 22, 23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2430kg	0
2/5	푸드뱅크	빵	4박스	2/6	아침간식	저리노숙인	4박스	0
2/5	푸드뱅크	만두	1박스	2/6	아침간식	저리노숙인	1박스	0
2/8	푸드뱅크	빵	4박스	2/9	아침간식	저리노숙인	4박스	0
2/8	푸드뱅크	만두	1박스	2/9	아침간식	저리노숙인	1박스	0
2/9	목9동 롯데마트	바나나	3박스	2/10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3박스	0
2/10	박인애	쌀20kg	5포	2/11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3포	2
				2/12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2포	0
2/15	푸드뱅크	빵	4박스	2/16	아침간식	저리노숙인	4박스	0
2/15	푸드뱅크	백	1박스	2/17	아침간식	저리노숙인	1박스	0
2/17	유운주	냉장육세트	2박스	2/28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2박스	0
2/17	무명	쌀20kg	2포	2/18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2포	0
2/17	더순	쌀20kg	7포	2/18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1포	6
				2/19, 20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243포	0
2/17	박현숙외 3명	쌀20kg	10포	2/21, 22, 23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2포	1
				2/24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1포	0
2/18	이기열	굴	10박스	2/18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10박스	0
2/18	푸드뱅크	바나나	15박스	2/19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8박스	7
				2/20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7박스	0
2/19	이든힐	쌀20kg	5포	2/20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3포	2
				2/21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2포	0
2/19	이성혜	딸기	100kg	2/20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100kg	0
2/19	이선화	마스크	1박스	2/20	무료급식	저리노숙인	1박스	0
2/19	푸드뱅크	빵	4박스	2/20	아침간식	저리노숙인	4박스	0
2/19	푸드뱅크	백	1박스	2/21	아침간식	저리노숙인	1박스	0
2/22	푸드뱅크	빵	4박스	2/23	아침간식	저리노숙인	4박스	0
2/22	푸드뱅크	백	1박스	2/23	아침간식	저리노숙인	1박스	0
2/26	푸드뱅크	빵	4박스	2/27	아침간식	저리노숙인	4박스	0
2/26	푸드뱅크	백	1박스	2/27	아침간식	저리노숙인	1박스	0

